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성창산업 불판 교체 필요없는 '황토세라믹 불판'**

고기 안 타고 육즙 그대로 ... 獨·日·홍콩서 '러브콜'

박창제 성장산업 사장은 2009년 한 미용기기 업체에서 부품 공급을 요청받았다. 머리 모양을 낼 때 쓰는 고데기의 발열판을 황토세라믹으로 코팅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자동차 부품 표면 처리만 30여년을 해온 박 사장은 코팅 기술에 자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원적외선이 나와 열 전도율이 높으면 불판으로 써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박 사장은 곧바로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2011년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고기생선 노릇노릇 구워져”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으로 선정된 성장산업의 '황토세라믹 불판'은 얇은 알루미늄 포일 위에 황토세라믹 가루를 입혀 코팅한 것이다.

프라이팬이나 불판 위에 갈아 놓고 쓰는 제품이다. 박 사장은 “고기와 생선이 눌어붙지 않고 잘 익는다”고 설명했다. “황토세라믹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열을 빠르게 전달해 재료의 겉과 안이 노릇노릇 잘 구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태우지 않고 육즙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으로 조리하면 몸에 좋지

않은 중금속이 나올 수 있다”며 “이때도 황토세라믹 불판을 올려 놓고 쓰면 좋다”고 했다. 코팅이 벗겨져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 프라이팬이 집에 있다면 이 제품을 활용해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프라이팬 위에 놓고 사용
車 코팅기술 불판에 적용
원적외선이 열 빠르게 전달**

**황토성분이 비린내 잡아
불판 청소할 필요 없어
고깃집서 문의 잇따라**

그는 “고기 굽는 불판이나 그릴은 닦는 게 가장 힘든데 이 제품을 깔면 수고를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판을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덕분에 고깃집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불판 닦는 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박 사장은 “황토 성분이 고기 냄새와 생선 비린내를 잡아준다”고 했다.

◆“홍콩에서 대량구매 주문받아”
박 사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알리고 있다. 이전에는 인

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올려 놓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조금씩 파는 게 전부였다. 광고나 마케팅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전시회에 나가 외국 바이어와 만나는 등 판매망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외 전시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나와 큰 부담이 안 돼서다.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소비재 전시회 '홍콩 메가쇼'에 출품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박 사장은 “홍콩에서 2만500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등 해외에서 오히려 반응이 더 좋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선 케이블방송으로 판매하자는 제안이 왔고, 독일 유명 주방기기 업체에서는 샘플 테스트를 하겠다고 제품을 가져갔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품을 다양한 형태로 내놓을 계획도 세웠다. 유럽은 포도주 보관용으로 적합하다는 조언을 듣고 실제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전 자라인지에 넣을 수 있게 소재를 알루미늄이 아니라 종이로도 만들기로 했다.

박 사장은 “한 번도 못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쓴 사람은 없다”며 “제품에 자신이 있어 연 100억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박창제 성장산업 대표가 '황토세라믹 불판'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아가프라-매직빨대컵 (031)234-9753 △주니랩-미니드론 1599-4729 △해울-LED 스마트지팡이 (063)851-8652 △성창산업-황토세라믹 불판 (055)298-0574

2015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은답산업훈장에 심재희 엔텔스 대표

산업부장관표창에
INKE 김동규 고문
중기청장표창에
류봉균 의장



심재희 대표 김동규 고문 류봉균 의장

심재희 엔텔스 대표는 2000년 SK 텔레콤을 그만뒀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엔텔스는 이후 3세대 통신기술인 WCDMA(광대역무선분할다중 접속)를 비롯해 4세대 LTE보다 2배 빠른 LTE-A를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원M2M)을 적용한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모비우스'를 SK텔레콤과 함께 개발했다. 작년 매출은 643억원이다. 심 대표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6일 '2015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에서 은답산업훈장을 받았다.

심 대표는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핵심 기술 개발은 부실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당사 시장이 원하는 기술은 사업부별로 즉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직원의 절반은 R&D 인력이다. 2007년 두 갈래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한 이유에 대해 “이전에는 시장과 떨어져 기술 진보만을 보고 연구개발했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R&D 조직을 개편한 결과

WCDMA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엔텔스는 현재 5세대 이동통신에 적용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개발 중이다. 네트워크의 무선주파수를 각 기기에 효율적으로 배분해 통신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심 대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6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했다.

이날 심 대표를 비롯해 세계한인네트워크(INKE)의 김동규 고문(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류봉균 미국 샌디에이고 지부 의장(중소기업청장 표창)을 포함해 총 80명의 벤처기업인과 유공자가 상을 받았다.

영국 런던에서 선박부품업체 엘디시유럽 대표를 맡고 있는 김고문은 INKE 창립 멤버로 15년간 INKE를 이끌었다. 모바일계열로 사업영역을 넓힌 김고문은 국내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의 유럽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류 의장은 기술컨설팅업체 에피시스사이언스 대표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독심자, 아시아 첫 4가 독감 백신 개발 성공

세계 네번째 상용화
1회 접종으로 4종 독감 예방
SK케미칼도 허가 대기중

독심자가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으로 4가 독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4가 백신은 세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사노피 메드이문 등 3개 회사만 제품을 내놓은 최신 백신이다. 1회 접종으로 네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을 얻을 수 있다. 기존 3가 백신을 맞고도 B형 독감에 걸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2012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등은 4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심자(대표 허은철)는 4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지씨플루워드리벤트’의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얻었다고 26일 발표했다. 아시아 제약회사 가운데 4가 독감 백신 허가를 받은 곳은 독심자가 처음이다.

4가 백신 개발업체
국내-독심자(허가 SK케미칼(허가심사중)
해외-GSK, 사노피, 메드이문

시중에 나와 있는 4가 독감 백신은 GSK가 올해부터 판매 중인 ‘플루아릭스테트라’가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독심자와 SK케미칼이 나란히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고 상용화를 준비해왔다. SK케미칼의 4가 백신도 조만간 허가가 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독심자의 4가 백신 허가는 독감 백신 분야에

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독심자의 독감 백신은 해외시장 진출 5년 만인 지난해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독감 백신 입찰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독심자 관계자는 “내년부터 4가 백신을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WHO에 4가 독감 백신의 사전적격성평가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동화기업, 도어시장 진출

동화기업이 ‘동화자연도어’를 26일 출시했다.

동화기업은 바닥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주력 제품이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난해 천장재 시장에 이어 이번엔 문(도어)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동화자연도어는 ABS도어와 연동도어가 있다.

ABS도어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수지)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습기나 수분에 약한 목재문의 단점을 보완했다.

연동도어는 나무와 폴리염화비닐(PVC)을 결합한 소재로 제작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한계기업도 성장가능성 있으면 살려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은 “부실 기업을 정리할 때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육성 가라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시중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들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175개 구조조정 대상 부실 중소기업 명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청장은 좀비기업 정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쟁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경영지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구조조정할 때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를 겪었지만 금융권 지원을 통해 재기가 성공한 기업의 사례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이광우 우리은행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등 6개 시중은행장과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임재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4개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금융개혁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실금융회사와 거래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수령하지 않으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개산지급금을 받으신 분도 추가로 정산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 ▶ 홈페이지 (http://www.kdic.or.kr)의 예금보험금 조회, 미수령 배당금 조회, 개산지급금 정산금 지급 신청 참조
- ▶ 안내전화 1588-0037

[예금보험금]이란 부부금융회사의 영업 안 허가 취소 등의 보충시책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시 공사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파산배당금]이란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란 파산배당금이 공사가 미리 지급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드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